

제주신화역사공원 R지구



태곳적 자연 품은 제주에 새로운 역사를 쓰다 Jeju Myths and History Park Plot-R



때 묻지 않은 태곳적 자연을 간직하고 있는 제주도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자연유산이다.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곳에 새로운 관광 명소가 탄생한다. 세계적인 수준의 복합리조트로 거듭나고 있는 제주신화역사공원은 제주의 토속 신화와 전설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 특급호텔, 쇼핑몰, 카지노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대건설은 현재 제주신화역사공원의 R지구, A지구, H지구 공사에 참여하고 있다. ▶ 관련기사 6·7면

Jeju Island, well known as its pure, ancient nature, is the UNESCO's World Natural Heritage. Always crowded with many tourists, the island is expecting a new tourist destination to be opened. The Jeju Myths and History Theme Park, a world-class resort complex, encompasses theme parks that feature local myths and legends, a premium hotel, shopping malls and a casino. Currently, Hyundai E&C is participating in the construction of Plot-R, A and H. ▶ Continued on page 6-7

현대건설 핵심 가치 세미나 올해의 키워드 '소통과 협력'

20일부터 4월 14일까지, 본사 177개 팀 1962명 참석... 공감대 형성의 장 마련

현대자동차그룹의 올해 조직문화 키워드는 '소통과 협력'이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모든 그룹사가 참여하게 되는 '2017 핵심 가치 세미나'에 현대건설은 본사 177개 팀, 1962명의 직원들이 참석한다. 팀별로 2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 1박2일의 일정으로 충청남도 서산연수원에서 진행 중인 이번 팀세미나의 주제는 '소통과 협력' 전 그룹사를 대상으로 매년 진행되는 '핵심 가치 내재화 및 몰입도 조사'를 통해 선정됐다. 현대자동차그룹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소통과 협력은 구성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임에도 실제 조사 결과에서는 매년 하위권에 머물러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대건설은 이번 팀세미나를 통해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조직 문화를 구축한다는 계획

이다. 특히 올해는 팀장 중심 조직 소통 역량 강화 및 2017년 기업 문화 실천 키워드 내재화를 위해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했다.

현대건설은 현대자동차그룹에 편입한 이후 핵심 가치 내재화와 조직 성과 향상을 위해 2012년부터 매년 팀세미나를 실시하고 있다. 그간 효과적인 핵심 가치 전파를 위해 ▶핵심 가치의 이해(2012년) ▶핵심 가치 업무 적용(2013년) ▶핵심 가치 기반 문제 해결(2014년) ▶팀 이슈 해결과 실행력 강화(2015년) ▶핵심 가치 내재화를 통한 조직 활성화(2016년)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해 왔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핵심 가치 세



미나는 나이와 직급을 뛰어넘는 공감대 형성과 소통으로 기업문화 개선뿐 아니라 업무 성과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핵심 가치 세미나는 ▶사전 활동(팀사전 진단, 팀장 세미나, 프리미팅) ▶핵심 가치 세미나(실전 점검, 핵심 과제 도출, 소통과 협력 실천 방안 학습, 해결방안 논의) ▶사후 활동(변화 추진 활동 시행, 포스트 미팅, 실행보고서 제출) 순으로 진행된다.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are keywords of 2017 Core Value Seminar

This year's keywords of Hyundai Motor Group about corporate culture are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As for Hyundai E&C, 1,962 employees of 177 teams from the head office participate in the 2017 Core Value Seminar. During the period from February 20 to April 14, each team of Hyundai E&C attends the seminar held in the Seosan Training Institute for two days. This time, main topics are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and they were selected as the keywords as a result of the yearly survey of the affiliates of Hyundai Motor Group about the internalization of and commitment to core values.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have been ranked low so far even though the members of Hyundai Motor Group put importance on them as core values. Hyundai E&C is planning to discuss them in depth and further build up an autonomous, responsible corporate culture by increasing the company's capability to communicate within organizations through the team-based seminar.

Korea's primary builder has held the yearly team seminar in an aim to internalize core values and improve corporate performance since 2012, one year after its incorporation into Hyundai Motor Group. The themes of training programs were varied such as the understanding of core values (2012), the application and actualization of core values in businesses (2013), the core values-based problem solving (2014), the improvement of teams' ability to resolve and execute business issues (2015) and the revitalization of organizations through the internalization of core values (2016).



현대건설, 한국남동발전과글로벌시장공략한다

9일 종로구 계동 본사에서 양해각서 체결... 해외 발전소 시장 적극 진출 협약

우리 회사와 한국남동발전이 해외 발전사업 동반 진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글로벌 전력시장 공략에 나선다.

우리 회사는 9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본사에서 우리 회사 정수현 사장과 장재원 남동발전 사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우리 회사와 남동발전은 해외 발전사업 부문에 대한 ▶협력구도 수립 ▶정보 교환 ▶업무협력 체계 ▶공동사업 추진 등 제반 사항에 합의하고, 사업타당성 검토, 금융 조달, 사업 실사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한 양사는 기존에



우리 회사 정수현 사장(왼쪽에서 일곱번째)과 장재원 남동발전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 발전사업 공동진출을 위한 MOU 서명식을 했다.

추진 중인 발전사업을 비롯해 추후 개발·제안하는 에너지 사업 또한 상호 협력하에 진행할 계획이다.

우리 회사 관계자는 “남동발전이 가진 사업 개발, 운영기술 노하우와 우리 회사가 가진 EPC 노하우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MOU 체결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해외 발전소 건설과 개발·운영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은 국내 에너지 분야의 선두 주자로 국내 최대 단위의 화력발전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그림사 소식

현대자동차그룹, 대한민국 신진 작가 창작 지원



현대자동차그룹이 그림사 인재개발원에 위치한 미디어아트 갤러리 '비전홀(Vision Hall)'을 통해 국내 신진 아티스트 발굴과 창작 지원을 이어간다.

현대자동차그룹은 7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현대자동차그룹 인재개발원 마북캠퍼스에서 미디어아트 관계자, 공모전 응모자,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관계자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디어아트 작품 공모전 '제2회 VH 어워드(VH Award)' 시상식을 개최했다.

VH 어워드는 현대자동차그룹 인재개발원 마북캠퍼스에 위치한 미디어아트 갤러리 비전홀에서 상영될 미디어아트 작품을 발굴하는 공모전으로, 역량 있는 국내 신진 작가를 발굴하고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최종 후보에 오른 작가 3인(김형규, 정화용, 최성록) 중 김형규 작가의 작품 '바람을 듣다_경계의 저편'이 그랑프리로 선정됐다.

Hyundai E&C and KOSEP set out to tap into the global market

Our company has signed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with Korea South-East Power (KOSEP) to make inroads into the global power generation market.

Our company held the MOU signing ceremony in the head office

located in Gye-dong, Seoul, on February 9. Hyundai E&C CEO Jung Soo-hyun, KOSEP CEO Jang Jae-won and other officials from both companies attended the ceremony. With regards to the power generation division, the two com-

panies agreed on a variety of issues concerning information sharing, the establishment of a cooperation structure and a business cooperation system and the promotion of joint businesses. They also pledged to actively carry out a review of

business feasibility, financing and due diligence. Together with the existing power generation projects, Hyundai E&C and KOSEP will develop and conduct energy-related future projects under mutual cooperation.

시장 기대치 부합된 경영실적 달성

매출 18조7445억원, 영업이익 1조527억원

우리 회사가 저유가에 따른 해외건설 경기 부진과 국내 건설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도 수익성 중심의 내실 경영으로 시장 기대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실적을 달성했다.

우리 회사는 지난달 26일 2016년 연결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매출 18조7445억원, 영업이익 1조527억원, 당기순이익 650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매출은 소폭(2.0%) 감소했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6.7%, 11.4% 증가했다.

극심한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도 수주는 지난해보다 7.1% 상승한 21조2295억원을 기록했다. 우리 회사는 UAE 원전, 쿠웨이트 자베르 코즈웨이 해상교량 공사 등 국내외 대형 현장에서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향후 중남미 등 대형 공사 현장에서의 매출이 본격화되면 올해도 매출이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부동산 경기 호조에 따른 수익성 개선과 지속적인 원가개선 노력 등으로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상승해 업계 최초로 '영업이익 1조원'을 달성했다. 당기순이익도 지난해보다 11.4% 증가했다. 미청구공사도 대폭 감소했다. 전년 말 연결 기준으로 4조2000억원에 달하던 미청구공사 금액은 6586억원 감소한 3조607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매출 대비 19.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아울러 우리 회사는 지속적인 원가절감 및 재무구조 개선으로 부채비율은 전년보다 15.6%p 개선된 144.2%, 유동비율은 전년보다 3.8%p 증가한 170.9%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이어가고 있다. 영업현금흐름도 지난해보다 1334억원이 개선된 6356억원을 기록했다.

힐스테이트, 아파트 브랜드 조사 트리플 크라운 달성



힐스테이트가 국내 아파트 브랜드 전문 리서치기관의 조사에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힐스테이트는 15일 부동산 정보업체인 닥터아파트가 진행한 올해 상반기 분양받고 싶은 아파트 조사에서 브랜드 1위를 기록했다.

힐스테이트는 지난해 10월 브랜드스타이 발표한 '100대 브랜드'에서 아파트 부문 1위,

12월 부동산114의 설문조사에서 브랜드 선호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힐스테이트가 영향력 있는 3대 리서치기관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한 것은 우리 회사의 전략적인 브랜드 마케팅이 효과를 본 것이라는 평가다.

우리 회사는 영문으로 표기하던 브랜드 명칭(Hillstate)을 한글(힐스테이트)로 수정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주거 명품'이라는 모호한 콘셉트 대신 '탁월함'이라는 현대자동차그룹의 품질경영과 연계되는 키워드를 사용했다.

실제로 아트 컬러(2009년 힐스테이트 김포 이후), 맞춤 평면(2013년 힐스테이트 위례송파 이후), 친환경 교육 안심단지, 힐스 스마일 서비스 등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는 고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현대·기아자동차, '지능형안전기술센터' 신설



현대·기아자동차는 연구개발본부 내 자율주행 개발 조직과 인력을 하나로 통합·확대한 '지능형안전기술센터'를 신설했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시동부터 목적지 도착 후 주차까지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가 가능한 완전한 자율주행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기존 첨단안전기술 담당 조직과 자율주행 선형연구 조직을 통합해 '센터'급으로 위상을 격상하고, 관련 기술의 일관된 개발체계 구축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특히 전 세계 어느 도로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도 적극 추진하는 등 미래 자율주행차 개발 주도권 선점 노력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대자동차그룹은 미국 GM에서 자율주행차 선행 및 양산화 개발을 초기부터 주도했던 이진우 박사를 '지능형 안전기술센터장' 상무로 영입했다.

제22차 현대건우회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 개최

우리 회사 전직 임직원 모임인 현대건우회(회장 안성환)가 지난달 12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제22차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춘림·곽삼영·권기태 고문을 비롯해 원로 현대건우회 회원과 우리 회사 정수현 사장 등 48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안성환 회장의 인사말과 이춘림 고문의 격려사, 정수현 사장의 축사, 박찬규 고문의 축배 순으로 실시됐다. 정기총회를 겸한 이번 신년교례회에서는 2016년 회무보고, 2017년 예산 및 사업계획 승인 등도 함께 진행됐다.

현대건우회는 1996년 6월 발족한 이래 현대건설 전·현 임직원이 선후배로 만나 상호 친목을 도모해 왔으며, 매년 초 신년교례회와 정기총회를 겸한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한 경기 최다 블로킹' 김세영 선수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배구단의 김세영이 한국 배구 역사에 남을 블로킹 신기록을 세웠다.

김세영은 8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6-17 NH농협 V리그' 여자부 5라운드 GS칼텍스와의 경기에서 총 13블로킹을 기록하며

한 경기 최다 블로킹 기록을 경신했다. 13블로킹 기록은 남녀부를 통틀어서도 최다 기록이다. 남자부 최다 기록은 지난 2007년 센터 방신봉(한국전력)이 기록한 11개다.



현대엔지니어링, 창립 43주년 기념식 개최

현대엔지니어링이 창립 43주년을 맞아 10일 계동사옥 본관 대강당에서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43주년 기념 동영상 시청 ▶송진 임원 및 임원 보직 임명 사령장 수여 ▶사내혁신 기술상 포상 ▶우수 봉사상 표창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사에서 성상록 사장은 “치열한 무한경쟁의 건설 산업환경 속에서 40여 년간 흔들림 없이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선배님들의 헌신과 임직원의 열정과 노력 덕분”이라며 노고를 치하했다. 성 사장은 또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생각과 행동의 혁신을 통한 기회의 모색과 도전 ▶고객 신뢰의 최우선과 고객을 위한 최고의 가치 창출 ▶진실한 소통과 협력을 통한 행복한 일터 만들기예 앞장설 것을 강조했다.

나사형 철근 선조립공법, 국토부 1월의 신기술

우리 회사가 취득한 나사형 철근 선조립공법 건설신기술(제807호)이 국토교통부 1월의 신기술로 지정됐다. 현대건설·롯데건설·현대제철·정우비엔씨가 공동으로 개발한 이 신기술의 공식 명칭은 '나사형 철근과 커플러, 연결핀, 거치대를 이용한 철근회전방식의 기동철근 선조립 철근망 시공법'이다.

철근을 한 가닥씩 세워서 조립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2개 층의 기동철근을 통째로 사전에 제작해 현장에서 미리 시공된 하부철근과 연결하면 돼 시공이 용이하고 오차를 줄일 수 있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마디형(이형) 철근이 아니라 기동 철근의 회전이 가능한 '나사형 철근'을

사용해 오차 보정이 용이한 것이 장점이다. 우리 회사는 이번 신기술을 문정6구역 지식산업센터 현장 등에 시범 적용해 철근 시공 시간이 기존보다 25%가량 단축되는 것을 검증했다. 또한 전용 연결재(커플러), 거치대, 지지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철근이 쓰러져 발생하는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The vibrant colors and sweet tastes of Portugal

Feb 11

Portugal rises above the rest as a European country that is a great place to visit. The average temperature in the country stays between 10 and 15 degrees Celsius (50 to 59 degrees Fahrenheit) during the winter, and even higher temperatures are seen on the country's popular Madeira Island. The larger cities are walkable, cozy and are full of colorful touches. The country, which is a little bit smaller than South Korea but has only one fifth of the population, is covered in colorful tiles, fishing boats, and scenic waterfronts.

After a day walking through any number of the vibrant cities throughout the country, fill your stomach with some local delicacies. The bright colors seen on the streets are also found in the food. A must-eat dessert in Portugal is undoubtedly the egg tart. The place that almost all travelers head to for the delicious treat is Pasteis de Belem, which opened in 1837. Throughout the country, egg tarts have distinct flavors and many enjoy search-



ing for their favorite. Egg tarts from bakeries in Porto are generally less sweet compared to ones found in Lisbon.

Many visitors come to Portugal in search of cod, octopus and sardines, as the country is surrounded by the ocean. There are hundreds of recipes for cod, known as bacalhau in Portuguese, as each home and restaurant has developed

its own style. Sardine and octopus are often grilled and served with either potatoes or rice.

Port wine is one of the world's best known fortified wines, with a higher alcohol content of around 20 percent. There are largely two types of port wine: ruby and tawny. While ruby has a color similar to red wine, tawny port is brown and sweeter. To find out the level of sweetness suitable for you, knock on doors of different lodges

located alongside the south side of the Douro River in Porto. Many of these lodges hold tours and tasting sessions.

Other parts of Portugal are known for their drinks as well. Lisbon has ginja, made with Portuguese brandy aguardente infused with a type of local berry to get a cherry flavor. The drink is often served in chocolate cup at bars. Some even put a shot of ginja in a local beer called Super Bock to give their drink a kick. On Madeira Island, a popular Portuguese island vacation spot for Europeans, poncha is the drink that visitors must check out.

If you get tired of drinking only sweet things, Portugal also has a wide variety of dry wine as well. One of the types to try is Vinho Verde, translated to green wine, which is mostly produced in the northern part of Portugal. The term indicates that the wine is made with young grapes, which provides a fresher taste. It is usually consumed locally and rarely exported, so might as well try it on the spot.

By KOREA JOONGANG DAILY

Group News

Triple triumph for Kia at iF Design Awards 2017



(SEOUL) February 7, 2017-Kia has won three prestigious iF Design Awards for the outstanding design of its latest vehicles. The Niro hybrid crossover, Optima Sportswagon and all-new Rio supermini have all received prizes for product design.

2017 is the eighth consecutive year in which Kia has received at least one iF Design Award. The latest hat-trick of prizes brings the manufacturer's total number of iF award-winning models to 12.

Peter Schreyer, President and Chief Designer of Kia Motors Corporation, commented, "These latest iF Awards are recognition for our excellent global design team. All three models, on which the Kia design centers in Korea,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cooperated closely, are highly important for our brand. With the Niro and the Optima Sportswagon, Kia has pushed into new market sectors, and has carved out a distinctive position in both segments with innovative, attractive design. With the new generation of the Rio we have given one of our global best-sellers a significantly changed, more mature character."

The official presentation ceremony for the 2017 iF Design Awards will take place on 10 March 2017 at BMW Welt in Munich. A selection of the winning products will also go on display at the iF design exhibition in Hamburg's HafenCity.



New capsule hotel in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offers solace

Jan 25

For those who find themselves stuck late at night at Incheon International now have a place to go for a quick nap on a comfortable bed instead of a seating area or cafe where many fight to keep their eyes open. The Incheon airport now has a capsule hotel called Darakhyu whose rooms can be booked by the hour.



Grand Walkerhill Seoul, opened Korea's first-ever capsule hotel, hoping to make the airport a more comfortable space. The hotel is located

in the Transportation Center, a building across from the main terminal.

There are a total of 60 rooms available with four different options, depending on bed size and whether the room includes a shower or not. The rooms do not include toilets, but there is a public bathroom for guests to use. The cheapest room includes a single bed without a shower and costs 23,100

won (\$19.80) for three hours. Anyone who wishes to book a room after 9 p.m. will be given 12 hours to stay at a discounted price. The overnight rate starts from 55,000 won. The outside of each room is designed to look like the doors and windows often seen in traditional Korean homes so that visitors can get a glimpse of what a traditional Korean design looks like.

Hyundai E&C Today's Online Event: Tune in 2 U

What is your secret tourist attraction in your country?

Starting in 2017, we run the online event "Tune in 2 U" every month, designed for our global employees of all nationalities to get an understanding of what they think about Hyundai E&C and Korean culture and give them a chance to feel closer to each other.

The topic of the February edition is "Tourist spots in your country you would like to recommend for your colleagues."

We received many e-mails between February 6 and 13 about fascinating places all over the world. We would like to thank all employees for recommending hidden tourist attractions in their hometown. Looking forward to hearing more opinions from you next time, we are going to introduce the best three comments.



BYKOVA YELENA
 (Accounting Management Group, Seoul)

Lviv and Tunnel of Love, Ukra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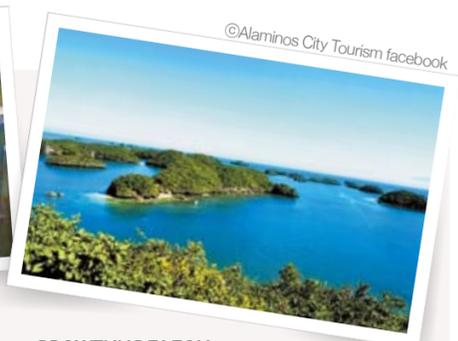
Lviv, which is the cultural capital of Ukraine, is a great choice for those who like legends and the atmosphere of old European streets. Lviv means the "city of lions," so you can find more than 4,500 lion decorations in the historical sites of the city. The Tunnel of Love, located near Klevan, is the industrial railway section entirely enclosed by green arches. It is known as a favorite place for couples to take walks.



FERDINAND CATAYONG PUNZALAN
 (P-003 Lusail Expressway Project, Qatar)

Subic Bay and Baguio, the Philippines

Subic Bay and Baguio City, which are located northwest and north of Manila respectively, are very popular and highly recommended from the local people. Magaul Bird Park, Zoobic Safari, Ocean Adventure and Funtastic Park in Subic Bay are perfect places for your holiday with kids. Baguio is one of the most visited destinations not only during the summer but also throughout the year for having a variety of cultural, historical and scenic attractions. There are Baguio Cathedral, Mines View park, the summer residence of the president of the Philippines and so 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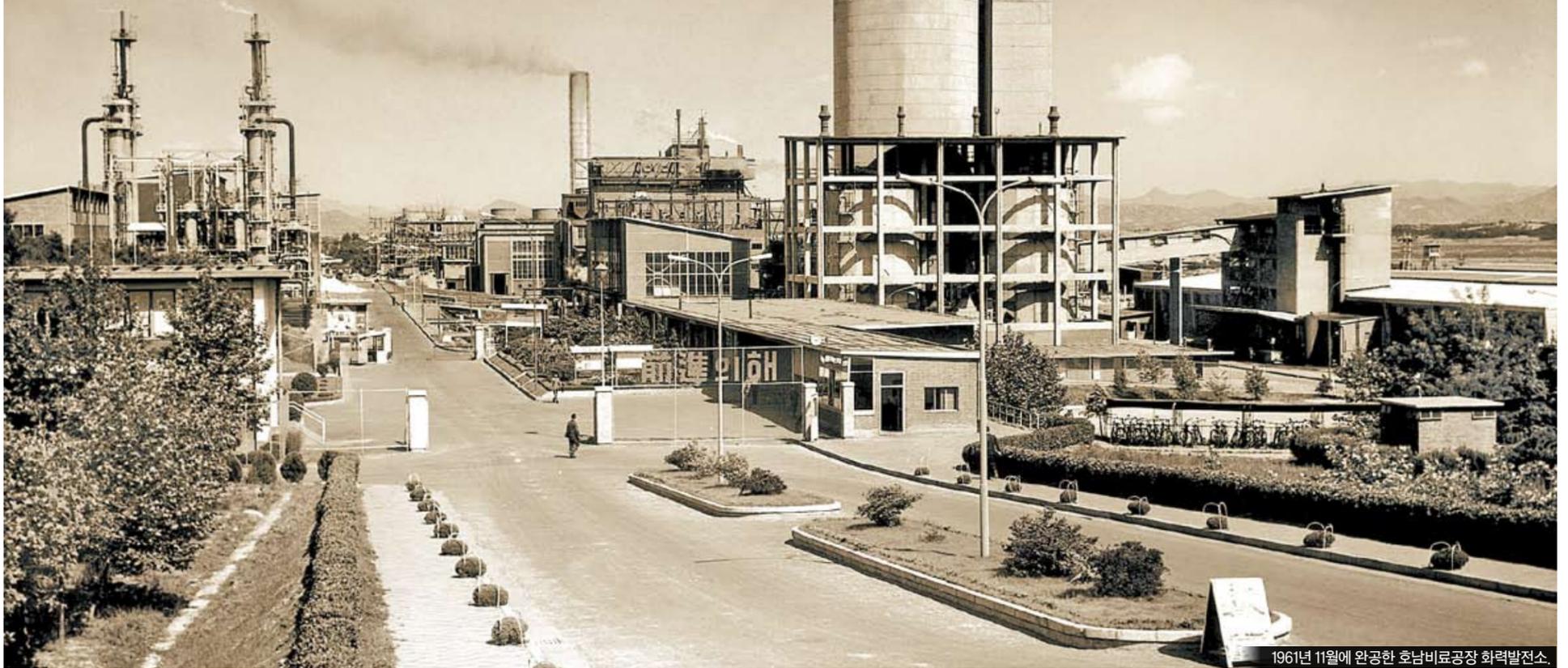


BROWENN DE LEON
 (Barakah Nuclear Power Plant Project, UAE)

The Hundred Islands National Park, the Philippines

The Hundred Islands National Park is the protected area located in the city of Alaminos in northern Philippines. It consists of 124 islands during low tide and 123 islands during high tide, and they are scattered in the Lingayen Gulf. Out of the many islands, only three were developed for tourism: Governor Island, Quezon Island, and Children's Island. The islands are a heaven for water activities. You can do island-hopping, kayaking, zipline, parasailing and so on.

창립 70주년을 맞아 현대건설의 역사를 바로 알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연재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건설사에서 글로벌 특 건설사로 발돋움하고 있는 현대건설의 눈부신 발자취를
<사보신문>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1961년 11월에 완공한 호남비료공장 화력발전소.

② 1960년대 국내 프로젝트(I)

60년대 한국 경제 발전을 견인하다

경제 개발의 원동력, 발전소 건설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은 1961년 정부가 경제개발원을 설치하면서부터였다. 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중 공업화의 원동력이 될 발전소, 특히 화력발전소 건설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당시 민간 건설업체 가운데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는 전무했다. 국내 건설업체는 외국 건설사의 하청업자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실정였고, 현대건설도 예외는 아니었다.

1961년 11월에 완공한 호남비료공장 화력발전소는 현대건설이 최초로 발전소를 건설한 공사였다. 1만1250kW 용량의 디젤 발전기 2대를 설치하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공사였으나, 당시 국내 민간 건설회사로서 그만한 규모의 발전 시설을 단독으로 시공한 사례는 전무했다.

현대건설의 발전소 시공능력이 종합적으로 발휘된 프로젝트는 영월 제2화력발전소. 이 공사는 당시 국내 기술진만으로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시험대였다. 1962년 5월 착공해 1965년 9월 준공한 영월 제2화력발전소는 저질탄 사용, 탄재 처리 등의 최신설비를 갖추었는데, 제1발전소와 달리 당시까지만 해도 유용하게 쓰이지 못했던 저질탄을 사용해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그 후 현대건설은 청평화력·화천수력·군산화력·인천화력·울산가스터빈발전소 등 수많은 발전소를 시공하며 설계를 제외한 모든 공정에서 기술적인 자립을 서서히 이어나갔다.



영월 제2화력발전소.

플랜트 공사의 기틀을 마련하다

현대건설은 1959년 호남비료 나주공장 기계 플랜트를 시작으로 다수의 플랜트 공사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공장의 설계나 시공의 감리 등 대부분은 선진 플랜트 수출업자의 주관으로 이뤄졌고, 현대건설은 일반 토목공사와 기계류 설치 공사에서 하도급으로 참여했다. 이 과정을 통해 현대건설은 각종 플랜트 시스템과 설계기술을 이해하고 습득하게 된다.

1963년 단양시멘트 공장은 자력으로 플랜트 건설을 시도한 최초의 공사다. 그간 수입에 의존했던 주요 건설 자재를 국산화하고 계열화했던 단양시멘

한 제2차 경제개발계획 기간 중 현대건설은 대한석유공사의 제1 정유공장 확장 공사, 호남정유의 제2 정유공장 건설에서 많은 활약을 펼친다. 국내 최초의 국제규격에 맞는 식용유 공장인 동방유량의 대두종합처리 가공 공장, 정부의 연료 현대화 사업의 일환인 서울 동서부이촌동 도시가스 공사도 현대건설의 기술로 시공된 것들이다.

항만건설로 물류 허브의 닻 올린다

항만건설 역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추진되고부터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사업이다. 정부는 진해항을 울산공업단지에서 뒤이은 신규 공업단지로 집중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화력발전소, 플랜트, 항만건설 등
새로운 분야에 적극 진출
국가 경제발전의 토대 마련해

트 공장 착공은 “현대건설의 3·1운동이다”라고 부를 만큼 획기적인 사업이었다. 하지만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24개월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고(故) 정주영 명예회장은 매주 일요일마다 현장을 방문해 일일이 챙겼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호령이 떨어졌다. 전 임직원이 합심한 결과 단양시멘트 공장은 예정 공기를 6개월 단축해 1964년 6월 준공했다.

한국비료 울산공장은 1966년 4월 중순에 착공해 만 9개월 만인 1966년 12월 준공했다. 생산규모가 연간 33만t이었는데, 단일 비료공장으로는 당시 세계 최대를 자랑했다. 이후 정부가 발표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항만·도로·용수시설 등의 확충을 시작했다.

현대건설은 호안(護岸) 제1차 공사를 1965년 6월 말에 착공해 같은 해 12월 15일 준공했다. 그 후 1967년 5월에 착공한 육지항 방파제 축조 공사의 경우 그 규모는 크지 않았으나 많은 인력이 투입된 공사였다. 망치로 천공(穿孔)과 발파를 하고 등점으로 자재를 날렸으며, 어선으로 운반한 돌을 인부들이 바다에 직접 집어넣는 방식 등 상당히 원시적인 작업 방식이었다. 이 공사 이후 현대건설은 압축공기를 이용한 드릴링(천공) 공법을 도입해 기술발전을 이어나갔다.

② Domestic construction projects in the 1960s (I)

The Korean government came up with a plan to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in line with the foundation of the Economic Planning Board in 1961. As part of the first five-yea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plan, the government focused on the construction of power plants, especially thermal power plants, which were expected to be a driving force behind the industrialization of the country. However, there were no local private builders that were able to construct power plants. As Korean builders took a role of a subcontractor of foreign construction companies, Hyundai E&C was no exception.

In November 1961, Hyundai E&C constructed the thermal power plant for the Honam Fertilizer Plant, which was the company's first power plant project. It was a relatively small-scale project involving the construction of two units of diesel generators with a capacity of 11,250 kW each. But until then there were no examples of private builders in the country which had a capability to build power plants of the size for itself.

The company's comprehensive capabilities were well demonstrated in the second Yeongwol Thermal Power Plant project, which was an important test bed to find out whether a power plant could be constructed only by a team of home-grown engineers. The project started in May 1962 and was completed in September 1965. Notably, Korea's primary builder cut down on the costs of generation in many ways, maximizing economic efficiency.

The construction of the Danyang Cement Plant in 1963 was the first project carried out by Hyundai E&C based on its own technology. As the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has been dependent on imports



1 Jinhae Port. 2 The construction of the Danyang Cement Plant.

of construction materials and equipment, Korea's primary builder used major construction materials made in the country and attempted to systemize them. As a result, the Danyang Cement Plant was considered a groundbreaking project even called "the 1919 Independent Movement of Hyundai E&C."

Harbor construction also got on the track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first five-yea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plan. The government decided to develop the Jinhae Port as a new coastal industrial complex, together with the Ulsan Industrial Complex, and to invest heavily in the development of the port. In the process of the development initiative, the government set out to expand harbors, roads and water supply facilities.

The first-phase shore protection work began at the end of June 1965 and was finished on December 15 the same year. It was an unparalleled large-scale project including the construction of the 950-meter shore protection and the reclamation of 70,000m² of sand and stone.

해피무브 글로벌 청년봉사단 18기 베트남 지역 봉사단원들이 1월 8일부터 20일까지 12박13일의 현지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베트남 지역에 파견된 83명의 해피무브 글로벌 청년봉사단은 건축, 교육 봉사 및 문화 교류를 마치고 돌아왔다. 글=해피무브 18기 현대건설 대학생 홍보단 김예현(숙명여대), 문예진(이화여대), 이종호(광운대) / 사진=이슬기



현대건설 18기 ‘해피무버’가 들려주는 생생한 베트남 이야기 “베트남의 행복한 미래를 짓고 왔어요”



맘 풀리며 알차게 채운 12박13일

해피무브 글로벌 청년봉사단(이하 ‘해피무버’)은 현대자동차그룹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으로, 그룹사와 NGO가 협력해 기획·진행하는 글로벌 봉사활동이다. 2008년 창단된 이래 매년 두 차례에 걸쳐 약 1000명의 대학생들을 선발하고, 선발된 대학생들은 다양한 나라로 파견돼 해당 국가에 필요한 시설 및 학교 건축, 문화유산 보전활동, 교통안전교육 등 국가별 특성에 맞게 기획된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펼친다.

지난 1월 8일부터 20일까지 18기 해피무버 베트남 지역 봉사단원 83명은 장장 13일간의 여정을 마쳤다. 베트남은 현대건설이 1966년 진출해 50여 년간 토목과 건축 분야에서 시공능력을 인정받아 긴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국가라 파견의 의미가 더 컸다. 83명의 대학생 해피무버는 베트남 타이응우옌 지역의 마을 주민들을 위해 유치원 및 마을회관 신축, 기존 유치원 시설 개·보수 작업, 초등학교 교실 증축, 교육봉사, 현대-코이카 드림센터 완공식 참석 등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잊지 못할 경험으로 희망을 꽃피운 해피무버

베트남 해피무버들의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마을에 필요한 건축물

을 짓는 노력 봉사와 현지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봉사, 현지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교류다. 이번 18기 해피무버들은 하노이로부터 한 시간 반 정도 떨어진 타이응우옌 지역에서 봉사활동의 첫 포문을 열었다. 네 팀으로 나누어 진행된 가운데 A팀은 초등학교 교실 2개를 증축하고, B팀은 기존 유치원 시설 개·보수 및 마을회관 신축을 맡았으며, C팀과 D팀은 마을 유치원 신축을 담당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삽질이 이어지고 비가 계속되는 곳엔 날씨에도 해피무버들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 어쩌나 작업에 열중했는지 작업 막바지 즈음 작은 해프닝도 있었다. 마을회관 신축을 담당하던 B팀이 벽돌을 쌓아올리는 작업 속도를 시멘트 양생 속도가 따라가지 못해 봉사가 중단된 것. 이에 B팀은 A팀 봉사 장소와 가까운 곳으로 이동해 예정에 없던 담장 외벽 보수와 외벽 페인트칠 작업을 추가로 진행했다.

해피무버들이 가장 손꼽아 기다린 것은 이틀간 현지 ‘Na Kham ECCD Center’의 유치원 원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 봉사였다. 안전하고 재미있는 활동을 위해 서투른 손놀림으로 교구를 준비하고 서로 시연도

선보이며 알차게 준비해 온 활동이었다. 플랜코리아 관계자는 “한 시간 내의 짧은 교육이지만 해피무버와의 만남은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물했다”고 설명했다. 통역의 도움을 받아 진행되는 내내 아이들과 단원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작은 가르침을 통해 소통의 즐거움과 큰 보람을 얻을 수 있었다.

1월 14일 오후에는 문화 교류가 이어졌다. 한국의 특색을 담은 공연을 준비해 베트남 현지 주민들에게 선보이기로 한 것. 문화특기자 단원들의 치어리딩부터 일반 단원들의 태권무까지 무려 9개의 문화공연을 준비한 해피무버들은 한국에서부터 연습실을 빌려 연습에 임했다. 현지에서도 노력 봉사 중 잠깐의 쉬는 시간과 저녁식사 후 잠들기 직전까지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연습에 여념이 없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공연을 앞둔 해피무버들의 얼굴에 긴장과 기대가 가득했다. 구름같이 모인 사람들과 보고 안절부절못하던 것도 잠시, 무대에 오르자 해피무버들의 얼굴에 자신감이 넘쳤다. 짧지만 그 어느 때보다 눈빛이 반짝인 순간이었다.



앞으로의 따뜻한 움직임을 기대하며

일정의 끝자락인 1월 18일, 해피무버들은 정들었던 타이응우옌을 떠나 수도 하노이로 이동했다. 베트남 현대-코이카 드림센터 완공식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현대-코이카 드림센터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기술을 개발·도입·도출하는 교육하는 직업기술학교로, 코이카(KOICA), 플랜코리아, 현지 정부 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사업이다. 2013년 가나를 시작으로 올해 베트남까지 총 4개의 교육시설이 설립된 가운데 지난해 완공한 베트남 제1 캠퍼스에 이어 제2 캠퍼스가 완공된 것이다. 특히 제2 캠퍼스는 현대건설이 독자적으로 이뤄낸 성과라 의미가 더욱 뜻깊었다. 하노이 건설전문대학에서 진행된 완공식에는 현대건설 연구개발본부 이석훈 본부장과 베트남 건설부 차관, 하노이 건설전문대학 총장 등이 참석해 현대-코이카 드림센터의 위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해피무버에게는 현대건설의 발자취를 확인하고 베트남 현지 청년들의 꿈과 희망에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완공식 당일 오후 해피무버들은 건설전문대학의 베트남 대학생 80여 명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 팀으로 나누어 드림센터 외부 벽화 그리기 및 율리 도색을 한 것. 손재주 좋은 해피무버가 담장에 해피무버 로고를 그리면 다른 해피무버들은 붓과 롤러를 들고 채색했다. 한쪽에서는 낡은 율리 도색을 마쳤다. 봉사를 마친 후에는 베트남 학생들과 동글게 둘러서서 제기를 차고, 운동장에서 팀을 나누어 축구를 하는 등 짧지만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현지인들과의 교류를 마무리했다. 다음 날인 1월 19일에는 현대건설이 시공한 송자 리조트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며 성공적인 베트남 봉사활동 일정을 마무리했다.

해피무버 봉사는 세상을 조금이나마 아름답게 가꾸는 원동력이 되었음은 물론, 참가자들에게도 많은 것을 보고 느끼는 성장의 기회가 됐다. 어려운 일을 다함께 성취해 가면서 느낀 자부심과 공동체 의식은 앞으로의 삶에 큰 자양분이 될 것이다. 18기 해피무버의 12박 13일 모든 참가자와 현지인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기를 바란다.

MINI Interview

대학생 해피무버 방준환(A팀)



“건물을 지을 때 처음에 하는 기초 작업이 잘 되어야 건축물이 잘 올라가는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 해피무버라는 경험이 좋은 밑거름이 되어 나중에 훌륭한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 해피무버 최승리(B팀)



“팀원들 각자의 꿈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더 큰 꿈을 꾸고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했던 수많은 일을 성공적으로 끝까지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대학생 해피무버 신정철(C팀)



“해피무버는 쉬고 있던 열정을 행복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해준 페이스메이커입니다. 큰 도전이었던 만큼 깨달음도 많았습니다. 이번 활동이 베트남 사람들 모두에게도 오랜 추억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하노이건설전문대학 기계배관학과 학생 응우옌 하임 썩



“함께 봉사활동을 하면서 본 한국 대학생들의 강한 책임감과 열정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현대-코이카 드림센터에서의 교육을 통해 전문 기술자로 성장하는 데 큰 동기 부여가 될 것입니다.”

1 고된 만큼 보람도 컸던 노력 봉사. 2 베트남 타이응우옌 지역에 행복과 기쁨을 전하고 돌아온 해피무버 글로벌청년봉사단 18기 베트남 지역 봉사 단원들. 3-4 베트남 해피무버들은 초등학교 증축과 유치원 개·보수에 참여했다. 5 해피무버들의 교육 봉사는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했다. 6 신축과 증축, 개·보수한 건물들과 현대-코이카 드림센터의 외벽 페인트 작업까지 담당했다.



현장탐방 제주신화역사공원 R지구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일대는 제주도에서도 오지였다. '꽃자왈'이라 불리는 원시림이 우거져 있는 데다, 암반지대라 농사조차 힘든 땅이었다. 그런 서광리가 제주도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 최전선으로 변모 중이다. 중문관광단지 개발 이후 최대 프로젝트라는 '제주신화역사공원' 조성 공사, 이곳에 우리 회사 '제주신화역사공원 R지구' 현장이 있다. 글=박현희

제주도 원시림에 세계적 수준의 복합 리조트를 짓다



1 콘도동 단지, 2 드론으로 촬영한 현장 전경, 3 근린생활시설 야경, 외벽은 금강돌로, 지붕은 동판으로 시공했다, 4 콘도동 기와 공사 당시 모습, 5 작업자들이 콘도동에 유리를 설치하고 있다.



Hyundai E&C building world-class resort complex in Gotjawal forest, Jeju Island

Stiff competition for Jeju Myths and History Theme Park project

Tourism infrastructure is changing in Jeju Island. The epicenter of the change is the Jeju Myths and History Theme Park. The Jeju Myths and History Theme Park project involves the construction of an integrated resort containing theme parks that feature local myths and legends, a premium hotel, shopping facilities and a casino. The long-awaited park will be located on a 3.98 million m² site, which is larger than that of the Jungmun Tourism Complex. The project costs 1.8 billion dollars, or approximately 2.07 trillion won. The client of the project is Landing Jeju Development Corporation, a Jeju Island-based joint venture co-financed by Hong Kong's Landing Holding Group and Singapore's Genting Singapore P.L.C.

Our company competed to win the project in less favorable con-

ditions because we had less experience in conducting construction projects in the island compared to our competitors and no experience to work with the client. Despite the fierce bidding competition, however, Hyundai E&C ended up being awarded a series of projects one by one to build resort condominiums, the first stage of theme parks and dormitories within Plot-R, A and H. The achievement is attributed

to the high awareness of Hyundai E&C and our elaborate construction planning.

Indomitable will to overcome barriers

The Jeju Myths and History Theme Park Plot-R is the first project that our company obtained in the development of Resorts World Jeju. In the Plot-R, 42 buildings of condominiums, 47 buildings of villas and 4

convenience facilities and 3 affiliated facilities are built in an area of about 230,000 m² and the total floor area of 134,000 m². The Plot-R construction began on August 6, 2015 and will be finished on April 15, this year. As of now, 98 percent of the construction was completed.

An official from the construction site said that the Plot-R is more like "a construction site conducted abroad." Unlike other domestic construction sites, it has the foreign client, deals with approval procedures as strict as those applied to overseas projects and holds meetings in three different languages. Moreover, due to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the island, the construction site has to fight against unpredictable changes in weather including strong wind, heavy rain and snow and receive all construction materials by sea, making the situation at the construction site worse. However, our company came up to the client's expectations by rushing the construction work even in the early stage of the construction to meet the schedule. As the Plot-R project has a huge effect on the projects that will follow on, our company put more emphasis on safety management. As a result, we had no accidents for a period of time three times longer than the annual average working hours designat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e roof and roof tiles are installed.



The floor is inlaid with marble.



치열했던 수주 경쟁

지금 제주도의 관광인프라가 새롭게 변하고 있다. 그 중심에 단연 제주신화역사공원이 있다. 제주신화역사공원은 제주의 토속 신화와 전설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 특급호텔, 쇼핑몰과 카지노 등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부지 면적은 398만 m²로, 중문관광단지(356만 m²)보다 더 크다. 공사 규모만 18억 달러, 우리 돈 2조7000억원에 달한다. 발주처는 랑징제주개발로 홍콩의 랑딩국제발전유한회사(랑딩그룹)와 싱가포르의 겐팅싱가포르(겐팅그룹)가 공동 출자해 제주에 세운 합작법인이다. 현재는 랑딩그룹이 지분 100%를 확보한 상태다. 제주신화역사공원은 콘도와 빌라가 들어서는 R지구, 호텔 및 컨벤션, 테마파크를 짓는 A지구, 콘도와 빌라가 세워지

제주도에서도 오지였던 서광리, 동북아 관광지도를 바꿀 대규모 복합리조트를 품어... 슬한 난제에도 돌관공사로 계약공기 지키다

는 H지구 순서로 발주되고 있다. 우리 회사는 제주 지역 내 공사 실적에 경쟁사 대비 적고, 발주처와의 특별한 접점이 없어 여러 가지로 불리한 상황이었다. 치열한 입찰 경쟁 속에서 제주 해군기지의 공사 경험과 싱가포르에서의 현대건설 인지도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시공계획을 세운 결과 R지구 콘도/빌라-기숙사 공사(3047억원 규모), A지구 테마파크 1단계 공사(1539억원 규모), H지구 기숙사 공사(349억원)를 차례로 수주할 수 있었다. A지구 호텔 및 컨벤션 2단계와 테마파크 2단계 공사, H지구 콘도/빌라 등은 발주 예정이다.

예외 발주처, 까다로운 승인 절차- 좁아 '예외 현장' 같이

제주신화역사공원 R지구는 제주신화역사공원 조성 사업에서 우리 회사가 처음으로 수주한 프로젝트다. R지구 공사는 대지면적 23만 m², 건축면적 약 5만 m², 연면적 13만 4000m²에 콘도 42개 동, 빌

라 47개 동, 근린생활시설 4개 동, 부속 시설 3개 동을 짓는 프로젝트다. 제주 지역 업체와의 공동도급이 원칙이라는 발주처의 권고에 따라 우리 회사는 주관사(49.96%)로서 한일(17%), 이수(14.34%), 한양(14.34%), 자연제주(4.36% 분담 이행)와 함께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2015년 8월 6일 착공해 공정률은 현재 98%이며, 준공 예정일은 오는 4월 15일이다. 제주신화역사공원 R지구 공사는 총 4개 공구로 1-3공구는 콘도를, 4공구는 빌라를 짓는 프로젝트다. 콘도는 외관 디자인과 인테리어에 따라 한국·중국·일본 스타일로 나뉘며, 빌라는 오리엔탈 풍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특징이다.

현장 관계자는 제주신화역사공원 R지구 현장 상황이 "좁아 '해의 현장' 같았다"고 했다. 해의 발주처, 까다로운 승인 절차, 3개 국어로 진행되는 회의는 여타 다른 현장과는 달랐다. 제주도의 지역 특색상 가능할 수 없는 날씨 변화는 모든 자재를 해상으로 공급받아야 하는 현장의 상황을 더욱 힘들게 했다. 더욱이 발주처는 계약된 공기 내에 공정을 달성하지 못하면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할 정도로 작기 준공을 중요하게 여겼다.

우리 회사는 공기를 맞추기 위해 공사 초기 단계부터 돌관공사를 진행하며 발주처의 기도에 부응했다. 후속 수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현장인 만큼 안전 관리도 철저했다. 강공에 비계(Scaffolding)와 장비가 전도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월 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회의도 수시로 진행했다. 그 결과 '무재해 3배수'라는 기록을 세웠다. 제주도 최대 규모의 복합리조트 조성을 위해 맡고 있는 제주신화역사공원 R지구 현장, 이 현장의 성공적인 준공이 후속 공사 수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INTERVIEW

“현장의 어려움? 남다른 정신력으로 돌파했죠”

○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영민 현장소장(이하 현장소장) 그 동안 반도체공정, SK하이닉스 반도체를 린플 감설 현장 등에서 근무했고, 고급 주거시설을 짓는 현장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 현장에는 2015년 7월 중순에 부임해 19개월째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중의 부장대우(이하 한 부대) 제주 현장은 여러 가지로 특수합니다. 저는 제주 해군기지 현장에서 19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있는데요. 당시의 경험이 우리 현장에서 건축파트장으로 근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용택 차장(이하 정 차장) 저는 1997년 주택사업본부로 입사해 아파트 현장에서 시공 업무를 하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기술연구소(현 연구개발본부)에서 기술개발 업무를 했습니다. 그 후 청주 하이닉스 현장에 부임했는데, 그때 김영민 소장님을 처음 만났죠. 오랜만에 현장 근무를 하게 돼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았는데, 그런 저를 많이 챙겨 주셔서 감사했던 기억이 나네요(웃음). 고희주 부장대우(이하 고 부대) 전기공공 일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에서 태

어나 고등학교까지 나왔는데요, 현장 근무를 위해 제주에 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웃음). 제 기억에 우리 현장이 있는 서광리 일대는 농사조차 안 되는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런 곳이 우리 회사의 손길로 변화하고 있어 기분이 좋습니다.

○ 공사를 진행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정 차장 우리 현장은 일정 기간에 달성해야 할 공정률이 계약서에 명기돼 있습니다. 현재지면이 얼마나 계약 공기를 반드시 지켜야 했기에 모든 직원이 촉각을 곤두세웠죠. 제주도 특성상 겨울에는 배가 자주 운항하지 않아 시멘트를 공급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사와의 협의 끝에 우리 현장만을 위한 전용선을 띄웠고, 콘크리트 타설 일정을 맞추실 수 있었죠. 이 밖에도 여러 어려움 속에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위기가 극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부대 변화무쌍한 날씨도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10월 제주에 불어닥친 태풍 치바는 현장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콘도에 설치해 놓은 기둥들이 순간 풍속에 못 이겨 파손되거나

날아갔죠. 바로 긴급회의에 돌입했고, 기둥을 고정시키는 클립을 특별히 보강했습니다. 이후에는 강한 바람이 몰아쳐도 기둥이 탈락되는 일이 없었죠. 고 부대 발주처에서 "다음 주에 최고 결정관자에게 보고할 것이니, 당장 너희가 제안한 객실관리 시스템의 세부적인 기능/성적서를 준비하라"고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통상적으로 세부 부품까지 인증서를 요구하지 않았던 터라 미처 거기까지 챙기지 못하고 있었죠. 그 날이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준비한 결과 다음 주 화요일에 'KC 인증' 전 단계인 '적합성 인증서'가 나왔습니다. 덕분에

○ 팀워크가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고 부대 제주도에서 근무한다고 하면 천혜의 자연경관을 바라보고, 여유를 만끽하며 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장 인건은 그야말로 오지입니다. 저녁 7시만 돼도 암흑지대가 됐죠. 그덕에 현장 식구들과 더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됐고, 자연스럽게 끈끈한 정이 생겼습니다(웃음).

한 부대 특히 우리 현장은 여러 회사와 수주한 공동 도급 공사여서 팀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시며, 현장을 이끄셨습니다. 돌관공사로 모두가 바빴지만,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회식을 열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며 무제한 명칭을 이어나가 주셨죠. 덕분에 팀워크도 좋아지고, 공사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난관도 불굴의 의지만 있다면 이겨낼 수 있다!” 제주신화역사공원 R지구 현장 직원들의 각오. 국내 공사임에도 예외처럼 느껴지는 제주 현장의 특수성, 변화무쌍한 날씨 등은 남다른 정신력으로 무장한 현장 직원들의 열정을 꺾을 수 없었다.

○ 올 4월 준공을 앞둔 현장 직원들의 각오 한마디.

고 부대 “하면 된다.” “내가 무너지면 내 뒤는 없다.”라는 생각이 근무했습니. 공사 막바지인 만큼 최고 품질의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 부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들게 달려온 지난 시간들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하겠습니다!

정 차장 현장은 현재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우리 현장이 제주신화역사공원의 '신화'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힘내서 최고의 결과물을 내놓겠습니다. 현장소장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의 정신으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발주가 예정돼 있는 클립하우스, 워터파크, 아이스링크, 호화 빌라 등도 수주할 수 있도록 공사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종대재 제로'인 현장인 만큼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이어가며 무제한 명칭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직원 여러분의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 현장소장, 정용택 차장, 고희주 부장대우, 한중의 부장대우(왼쪽부터).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한분야의 이론이나 기술을 집대성하거나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던 것을 해내야 한다. 에펠탑을 세운 에펠은 후자를 택했다. 혁신에 필요한 것은 대중들의 지지가 아니라 기술에 대한 굳건한 확신에서 비롯한 자신감과 끊임없는 연구였다. 글=이석용 용인대학교 초빙교수(『건축, 교양이 되다』 저자)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만든 혁신가, 에펠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은 창의적 공학자

에펠탑은 파리가 가진 많은 것들 중 하나가 아니라 그곳을 파리로 만들어주는 독보적인 퍼즐 조각이다. 에펠탑이 그곳에 있다는 것이 너무 당연해 에펠탑 건설 이전의 프랑스 파리는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그런데 여기엔 강렬한 의문이 하나 있다. 고전,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로 이어지는 유럽의 전통에서 한참을 벗어나 당시 프랑스 파리 시민들의 강렬한 반대에 부딪치기도 했던 에펠탑이 어떻게 현재는 시민들의 자긍심의 원천이 되었을까?

잘 알려져 있듯, 에펠탑의 이름은 탑을 만든 알렉상드르 귀스타브 에펠(Alexandre Gustave Eiffel)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에펠은 독일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군 복무 도중 책을 집필할 정도로 지적이었고, 어머니는 사업 수완이 좋았다. 소년 에펠은 그리 특별한하지 않았다. 쓸데없는 공부를 해야 한다며 늘 불평이었다. 에펠은 프랑스에서 가장 명성 높은 파리공과대학교(Ecole polytechnique)에 진학하길 희망했다. 그러나 중앙공예학교(Ecole centrale des arts et manufactures) 입학에 만족해야 했다. 에펠은 이곳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심지어 기술 도안 과목에서는 낙제에 가까운 점수를 받기도 했다. 게다가 후에 '철의 대가'로 여겨지는 에펠이 선택한 2학년 전공이 화학이라는 점에서는 아직 그가 자기 인생의 향방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런 에펠이 학교를 졸업하던 22세, 1855년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인상적인 건물을 만나게 된다. 엔지니어 알렉시스 바로가 철로 만든 '산업의 궁전'이 그것이다. 철로 건물을 짓는다는 건 당시로서는 기괴하게 보였을 뿐만 아니라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었다. 이때부터 에펠은 철야말로 새로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재료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주철 공장을 경영하는 처남 조제프의

도제가 되어 이듬해 샤를 누보를 만났다. 샤를 누보는 에펠을 철의 세계로 인도한 스승이자 안내자가 된다. 에펠은 누보와 함께 보르도 근교의 갈론 강을 가로지르는 500m 길이의 철교를 설계했고, 누보가 1년 만에 사임하면서 사실상 최종 책임자가 된다. 에펠은 첫 번째 다리를 시작으로 이후 많은 다리를 놓게 되면서 명성을 쌓아간다. 1867년에는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기계관의 중앙 아치 대들보를 설계했고, 1877년에는 포르투갈 도루 강에 강철 아치교인 마리아 피아 다리를 만들었으며, 남부 프랑스 트뤼에르를 가로지르는 162m의 아치교 가라비고교를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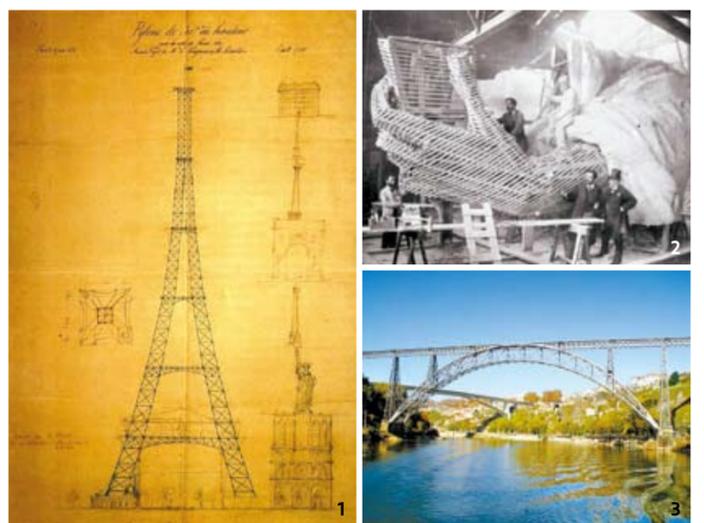
학창 시절 우등생도 아니었던 에펠이 성공적으로 많은 다리를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는 노력 덕분이었다. 스승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발휘해 자신만의 이론을 정립했고, 철저한 수학적 계산으로 정확하게 결과를 예측했다.

이후 미국과의 우정의 상징인 '자유'의 여신상' 작업에 참여한 것은 보통의 건축가나 토목 전문가가 수행하기 힘든 독특한 경력이다. 조각가 오귀스트 바르톨디가 전체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에펠은 자유의 여신상 철골 구조물을 만들었는데, 에펠이 바르톨디의 낙점을 받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인다. 우선 자유의 여신상은 거대 구조물인 동시에 지극히 불균형한 형태를 지니고 있었다. 헛 불을 든 손 때문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공학자가 필요했던 것이다. 에펠은 팔을 지탱하는 보를 골조를 통해

반대편까지 내려오게 해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채택한다. 또 다른 하나는 에펠이 바람의 저항 문제에 대해 탁월했다는 것이다. 에펠은 대부분의 프로젝트를 통해 이 분야에서 이미 정평이 나 있었다. 이때가 1886년의 일이다.

혁신을 이루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이로부터 3년 후 프랑스 제3공화국 정부는 프랑스대혁명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1889년 파리 만국박람회에 맞춰 상징적인 건축물이 필요했다. 100개가 넘는 지원서 중 정부의 요구에 가장 근접한 계획은 에펠의 안이었다. 상드막스 광장에 만국박람회장 입구로 세워질 타워는 300m(이후 첨탑과 통신용 안테나가 추가돼 총높이는 320m가 되었다)의 높이에 무게는 7300톤(비금속까지 포함하면 1만톤)에 이르는 1만8038개의 철재 부재(시멘트 마르탕 평로강)와 250만 개의 리벳으로 이루어진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특히 에펠은 부재와 부재를 리벳으로 연결하는 공법을 채택했는데, 이는 외부 공장에서 재단한 철재 부재에 0.1mm까지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계산된 리벳 구멍을 뚫어 250명이 채 되지 않는 작업자들이 오차 없이 조립할 수 있었다. 또한 구조공학적으로도 리벳에 의한 이음새를 사용함으로써 접합점에 필요한 강성을 얻을 수 있게 되어 이제까지 지지 기능만을 하던 지주



1 에펠과 함께 작업했던 괴슬랭이 그린 에펠 탑의 초기 도면. 높이를 비교하기 위해 노트르담 사원과 자유의 여신상 등의 건물을 함께 표시했다. ©Maurice Koechlin, Emile Nouguier 2 에펠과 그의 동료들은 자유의 여신상 철골 작업에도 참여했다. 3 포르투갈 포르투의 상징인 동 루이스 1세 다리의 전신인 마리아 피아 다리 또한 에펠의 작품이다. ©Joseolgon

직접 공사 비용을 대고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에펠탑 건설에 대한 확신과 도전정신을 드러냈다. 한 고비를 넘기니 또 다른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프랑스의 많은 지성인과 예술가가 탑 건설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파리 중심에 자리 잡은 야만스러운 철 덩어리가 파리를 수치스럽게 만들 것이라는 게 그 이유였다. 소설가 모파상은 에펠탑이

이었던 에펠. 그런 그가 세상 어디에도 없던 지상 300m에 달하는 철재 구조물을 만들겠다고 나선 것이다. 오직 손으로 작업한 수많은 도면과 수식들만으로 탄생한 에펠탑은 뉴욕의 크라이슬러 빌딩이 완공된 1930년까지 무려 40년이 넘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구조물로 이름을 떨쳤다. 흥물스롭다는 평에도 불구하고 에펠탑은 철대자에 대한 경의를 나타내며

에펠은 부재를 리벳으로 연결하는 공법을 채택했는데, 0.1mm까지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계산된 리벳 구멍을 뚫어 250명이 채 되지 않는 작업자들이 오차 없이 조립할 수 있었다.

도 굵힘 응력을 받게 되었다. 당시에는 획기적인 공법이었다.

결국 1887년 인류 최초의 시도는 시작되지만 기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순탄하지 않았다. 기술적인 난관은 차라리 의욕을 불태울 만한 것이었다. 그보다 더한 많은 사람의 거센 저항에 부딪쳐야 했다. 일단 300m라는 높이를 처음 접하는 많은 기술자가 건물이 뒤틀러 무너질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당시 시카고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55m였고,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은 66m, 로마의 베드로 대성당은 132m에 불과했다. 그 지역 주민들은 매일 들려오는 그와 같은 소식으로 공포에 휩싸였고, 결국 국가와 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에펠은

완성되면 파리는 물론이고 아예 프랑스를 떠나겠다고 할 정도였다.

'에펠'의 탑, 프랑스 파리의 탑이 되다

1889년 5월 15일, 에펠탑이 완성되고 거의 동시에 대중에 개방되고 나서 이 격렬한 저항은 순식간에 열광적인 동의로 바뀌었다. 무슨 이유에서였을까? 건설되는 내내 독설을 뽐어대던 지성들과 시민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박람회 기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다녀갔고, 에펠은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이 조성한 공사 금액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다.

되짚어 보자. 차선의 선택지였던 중앙공예학교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학생. 단지 교량 건설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정도인 그저 그렇게 보이는 학생

더 높은 곳을 향하고자 하는 탑의 순수한 존재 가치에 가장 잘 부합한 구조물이었던 것이다. 대중들은 당시 300m라는 높이의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재료는 철뿐이라는 에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계산과 감동으로 그 주장을 현실로 만든 에펠의 노력에 점차 감탄하게 됐다. 때문에 처음에는 싫어했지만 반복 노출이 거듭될수록 호감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에펠 효과'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에펠탑이 지금까지 프랑스의 상징으로 건재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에펠의 노력과 열정 때문이다. 그는 노력으로 학교의 열등생에서 사회의 우등생이자 세계적인 혁신가가 되었다. 물론 합리적으로 인재를 등용하고 혁신을 수용한 프랑스 당국의 해안도 뒷받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에펠탑 완공 이후 에펠의 삶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에펠은 61세에 사업에서 은퇴한 말년에도 공기역학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이어갔다. 쉬지 않고 연구에 몰두한 그는 사망 두 해 전에 연구실을 국가에 기증하였다.



건축 재료로 철을 사용한다는 상상하기 힘든 일을 실천해 옮긴 에펠의 에펠탑.

알렉상드르 귀스타브 에펠 Alexandre Gustave Eiffel

프랑스의 건축가 및 구조공학자. 1832년 프랑스 디종에서 태어났다. 프랑스의 중앙공예학교에서 철골 건축을 익히고 프랑스와 포르투갈 포르투에 철골교를 건축함으로써 이름을 알렸다. 1885년에는 뉴욕 자유의 여신상 구조를 설계했고, 1889년 파리 만국박람회를 기념할 철골조의 에펠탑을 세웠다. 1923년 91세의 나이로 사망하기까지 다양한 공학 분야 연구에 몰두했다.



지난 15일 개봉한 영화 <재심>은 2000년 발생한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목격자가 살인범으로 뒤바뀐 희대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 영화 개봉과 함께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 박준영 변호사의 드라마틱한 삶이 화제가 되고 있다. 고졸 학력으로 사법고시에 합격해 현실에 맞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무료 변론을 하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글=임나라 <채널에스> 기자/사진=신화섭(AM12Studio), 오피스픽처스

HYUNDAI E&C TODAY
http://news.hdec.kr
Vol. 329
2017/02/22/Wednesday



영화 <재심>의 실제 주인공 박준영 변호사
“측은지심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다”

지난해 8월, 포털사이트 다음의 ‘스토리 펀딩’을 통해 파산 위기에 놓인 한 변호사의 사연이 공개됐다. 기사의 제목은 ‘하나도 거북하지 않은 파산 변호사’, 주인공은 ‘재심 전문 변호사’ 박준영이었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 무기수 김신혜의 재심을 이끌었던 그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기사가 공개된 지 사흘 만에 1억원 이상의 후원금이 모였고 최종 모금액은 목표의 5배를 넘어섰다.

그날의 일을 떠올리며 박준영 변호사는 ‘측은지심’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단연컨대 이 경이로운 기록에 담긴 것은 애처로운 마음만은 아니었다.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일, 누군가는 해야 할 그 일을 짊어져 준 데에 대한 고마움이었고, 그만큼 무거운 부채감의 표현이었다. 동시에 그것은 질문이기도 했다. 변호사 박준영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 볼 때, 우리는 그에게 묻고 싶다. 신념대로 산다는 것,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낼 수 있는가.

Q 수임료를 받는 사건은 많지 않으신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님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실 것 같아요.

저도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큰 금액을 펀딩하기는 했지만 함께한 분들께 드려야 하는 돈도 있었고, 세금으로도 적지 않게 나갔고, 기존에 워낙 열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빚을 갚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솔직히 여윌 돈도 계산해 보게 되더라고요. ‘이 돈으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약간 답답하기는 합니다.

Q 그런데도 무료 변론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일반 영리활동을 한다는 게 자칫 잘못

하면 큰 무리수를 둘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이라는 것이 수입 단계에서부터 좋은 사건인지 나쁜 사건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영리활동을 잘못 맡으면 다른 공익 활동까지도 다 문제 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삼례 사건의 진범에게 접근했을 때, 그분이 저에 대해 부담을 갖지 않고 사실을 다 이야기한 이유는 저의 공익적 활동 때문이에요. 저를 믿은 거죠. 이게 얼마나 의미가 큰지 몰라요. 그런 이미지를 제 스스로 감아먹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스스로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일하면서 힘을 얻게 되고요. 어찌됐든 누군가가 앞으로 이 일을 계속 이어나가야 할 텐데, 좋은 선례로 남아주는 게 맞잖아요.

Q 인터뷰나 방송에도 많이 출연하고 계신데요.

이런 일은 연속성으로 이어가야 하는데, 개인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또 다른 누군가가 나타나야 돼요. 저를 보고 누군가가 용기를 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선례를 보고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재심> 속 한 장면.

내가 모르는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같이 관심을 가져 주는 것
그게 연대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Q 재심 사건을 변론하시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이 있으시죠?

증거 수집이나 밤샘작업을 할 때의 어려움은 지나가고 나면 힘들었다는 생각이 덜 나요. 당연히 각오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가장 힘든 건 시간이 오래 걸리면 당사자의 고통의 시간도 길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법을 공부한 법률 전문가가 될 수 있을지언정 사람의 마음을 달래가면서 할 수 있는 심리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 점에서 한계가 있어요. 재심에 수년씩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동안에 당사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Q 재심 사건의 변론을 결심할 때 “느낌을 가장 먼저, 그 다음에 기록”을 본다고 하셨는데요.

사람을 몇 번 만나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눈을 마주보면서 이야기할 때는 위선적인 사람은 잠깐이라도 시선이 돌아갈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은 뭔가 감추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타이밍이 있죠. 그 직감을 너무 우선시하면 안 되지만 그 사람의 억울함을 호소할 시간과 수단, 그 사람을 만났을 때의 느낌들, 그

런 ‘감’이 때로는 기록보다 더 강렬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맡았던 사건들은 수사 기록이 조작된 경우가 많거든요. 심지어 삼례-익산 사건은 진범이 따로 있는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서를 보면 범인만이 할 수 있는 진술들이 들어가 있어요. 조작돼 있으니까요. 그 기록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기록의 이면을 보려면 사람을 봐야 되거든요. 그걸 보는 게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Q 최근 출간한 책 『우리들의 변호사』에서 재판 과정에서 목격하신 부조리, 절차상의 한계를 이야기하기도 하셨어요. 어떤 변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보세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대로 된 민주적인 사법절차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수백 년의 사법 제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도 오판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민주적 사법제도가 작동한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은 나라에서 완결성을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바꿔보려고 외국에서 많은 제도를 보고 가지고 오는데, 그게 우리나라 실

상에 맞지 않는 경우도 너무나 많아요.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들이죠. 운영 과정에서 당초 제도의 취지와 반대로 운영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먼저 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무조건 보고 들어올 게 아니라 우리 현실에 맞는 것인지, 현실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계속 체크해 나가는 게 필요해요.

Q 시민들의 인식도 달라져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진범이 따로 있는 사건이 17년 만에 해결됐어요. 황당하고 말이 안 되는 사건이고, 어떻게 이런 사건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시죠. 그런데 실제로 해결이 안 돼요. 대법원에서도 재심을 기각해 버린 사건이에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공감과 연대가 작동하다가도 끊기는 시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관심이 중요하니까. 관심만 계속 갖고 있다면 그 관심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은 바로잡아요.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데 있어 각각의 영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게 필요하죠.

Q 그런 의미에서 서로 다른 영역 사이의 연대도 필요하겠네요.

상대방의 영역에 대해 내가 모른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불합리하고 문제되는 것에 대해 같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거든요. 그게 연대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힘이 모여서 세상을 바꿉니다. 이번에 탄핵 절차까지 가게 된 과정을 봐도 결국은 시민들의 연대의 힘이 이뤄낸 거잖아요. 절대 잘난 사람들의 호령은 아니었거든요.

개학일자가 다가오면 부모는 은근히 걱정한다. 공부는 잘할까?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까? 이제까지 잘해왔다면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 문제는 그렇지 않을 때다. 이 경우, 일단 아이가 개학을 반기는지 살펴야 한다. 표정이 어둡다면 이유를 알아야 한다. 분명히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다. 글=이중훈 정치경영컨설팅대표(『인생은 정치다』 저자)

신학기, 우리아이 관계 맺기 솔루션

Step 1 학기 초, 권력서열이 정해질 때

학기 초, 특히 학년 초는 아이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다. 권력서열이 다시 정해지기 때문이다. 권력서열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긴장의 연속이다. 당연히 갈등도 불가피하다. 해마다 3월부터 5월 사이에는 학교폭력도 늘어난다. 8월부터 10월 사이도 마찬가지다.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잘 말해준다. 학기 초는 이처럼 은근히 치열하다.

학교에서 권력서열이라고 하니 금방 납득이 안 갈 것이다. 학교 내의 권력은 크게 두 종류다. 공부 능력과 싸움 능력이다. 학교에서는 공부 잘하는 것이 일단 최고의 권력이다. 공부를 잘하면 친구 사귀기도 쉬워진다. 반장이 될 가능성도 높다. 싸움을 잘해도 권력이 생긴다. 이른바 '일짱'이 되면 왕 또는 여왕처럼 조직, 일진을 거느릴 수 있다.

요즘은 예능 권력도 뜨는 중이다. 노래를 잘하거나 춤을 잘 추거나 그림을 잘 그린다면 권력이 생기는 것이다. 물론 게임을 잘하는 것도 예외가 아니다. 대다수의 부모는 아이가 게임을 잘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아이들 세계에서 게임은 필수다.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부모의 재력도 교실 내 권력서열에 영향을 미친다. 부모로서 가장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Step 2 아이의 스트레스 요인 파악

신학기를 앞두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자녀와 대화다. 맞벌이로 바쁘더라도 반드시 시간을 내야 한다. 학교생활에서 애로사항, 권력서열 등에 관해 듣는 시간이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왕따를 당하고 있는지 여부다. 한때 왕따를 당했다면 그것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또다시 왕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왕따의 구체적 상황에 관해서도 들어야 하지만 원인이 무엇인지도 함께 분석해 봐야 한다. 근본적인 원

인이 교실이 아닌 가정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정하기 싫은 현실이더라도 일단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아이가 성적이 낮을 경우, 그것에서 왕따의 원인을 찾아선 안 된다. 낮은 성적은 원인이기보다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왕따 말고도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 요소는 많다. 교실 환경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마음에 드는 친구가 없을 수도 있다. 담임교사의 무관심이나 은근한 배제가 원인일 수도, 유행하는 옷을 입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 어떤 것이건 부모는 알아내야 한다. 이 일은 아빠와 엄마 가운데 비교적 아이와 대화가 잘 통하는 쪽이 담당해야 한다. 실용적으로 접근해 애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Step 3 스트레스의 원인과 해결 방안 작성

대화를 거쳐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애로 명단'이다. 심각하게 느끼는 것부터 위에서 아래로 적어 본다. 의외로 길더라도 인쇄심을 갖고 작성해야 한다. 애로 명단과 더불어 아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것과 부모가 지원해야 할 것도 함께 적어 본다.

예를 들어 왕따의 원인이 비만이라면 살을 빼야 한다. 본인도 운동과 식습관 변경 계획을 수립해 실천해야 하지만 부모도 함께 운동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주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다. 매일 늦잠을 자서 지각하는 것이 원인이라면 부모가 당분간 아침마다 깨워서 학교에 데려다 주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패션

테러리스트라서 따돌림당하고 있다면 새 옷을 사주고 옷 입을 법도 가르쳐야 한다. 잘 씻지 않아서 외면당하는 처지라면 매일 샤워하는 습관도 길러줘야 한다. 공부를 잘하는 것이 왕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너무 약삭같다는 악평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공부

만 잘하는 아이로 키우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친구들과하고도 잘 지내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뜻이다.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에게 공부로 도움을 주는 방식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춤을 잘 춘다면 춤을 잘 못 추는 친구들에게 재능기부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재능을 나눠주면 친구는 늘어난다. 이런 방식으로 해법 목록을 함께 만들어 두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학교로 쳐들어와 선생님 먹살부터 잡고 보는 부모가 있다. 그래서 안 된다. 내 아이가 가해자건 피해자건 영리하게 접근해야 한다. 가해자라면 교사와 피해 학부모에게 철저히 자세를 낮춰야 한다. 눈물도 호소도 필요하다. 피해자라면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단호하고 차근차근 따지되 언성을 높이는 것은 자제하는 편이 좋다.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는 나름의 공식 절차를 밟는다. 징계위원회가 대표적이다. 언성은 높이면서도 정작 징계위원회가 열릴 때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부모가 적지 않다. 내 아이가 가해자건 피해자건 당사자일 때는 징계위원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변호사까지 대동할 필요는 없지만 나름 논리를 세워 합리적으로 설득해야 내 아이가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

Step 4 자녀와도 거래해야 한다

당장의 위기를 넘기고 나면 자녀와 마주 앉아 협상해야 한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시간이자, 권력서열의 밑단에 깔려 서서히 고사해 가는 아이를 살려내는 방안이다. 통상 부모의 최대 관심사는 학교 성적이다. 1등을 해서 반장을 하는 아이가 롤 모델이다. 그래서 아이들의 미래 직업은 변호사 또는 의사가 될 바란다. 자신들도 이루지 못한 목표



를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시대는 갔다. 잘나가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수입이 훨씬 더 많은 시대다. 직업은 앞으로 더 다양해질 것이다. 자녀의 재능은 초등학교 때 이미 나타난다. 바람과 차이가 크더라도 그것을 키워주는 것이 정답이다. 물론 그 과정 역시 수월한 것은 아니다.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은 자주 힘들어 한다. 그럴 때마다 격려해주고 가끔은 끌고 나가는 것도 부모가 해야 할 일이다.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도 초등학교 6학년 때 빙상장과 학교만 오가는 단조로운 선수생활이 힘들다며 그만두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다. 그 모든 투정을 받아주고 다독겨려 선수생활에 복귀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엄마 박미희 씨였다.

이때 거래도 불사해야 한다. 부모 자식 간에 무슨 거래냐고 반문할 사람들이 없지 않을 것이다. 원론적으로는 그

렇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아이들은 어렸을 때도, 다 큰 다음에도, 심지어 부모가 연로했을 때도 이해관계로 접근한다. 부모는 맹목적 사랑으로 접근하지만 아이들은 다르다. 더욱이 부모가 거래를 가르친 면도 없지 않다.

자녀가 최신형 스마트폰을 갖길 원할 때 당신은 어떻게 하는가? 그냥 덥석 사주는가, 아니면 조건을 내거는가? 후자일 것이다. 성적이 오르면 또는 게임하는 시간을 줄인다면 하는 식으로 조건을 내걸 것이다. 그것 또한 거래다. 따지고 보면 거래는 부모가 먼저 시작한다. "눈물 뚫? 그러면 아이스크림 사줄게!" 여러분도 이 말을 자주 애용했을 것이다. 자녀가 가장 원하는 것을 지렛대로 부모가 원하는 바를 이끌어내는 것은 효과가 좋다. 아이들 입장에서 나머지 대사는 그냥 잔소리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자녀와 거래를 절대 터부시할 일이 아니다.



교실도 정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초·중·고 12년이 편하다

초등~중등생 부모들을 위한 팁!

“아이와 아이의 친구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꾸준히 상기시켜 주세요”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실은 공허한 주문이다. 나쁜 친구도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세상에는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현실을 어느 정도 이야기해 주는 편이 낫다. 특히 적을 대할 때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차분하게 대처하도록 조언해 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초등학교 고학년 좋은 친구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생기는 시기다. 다만 어떻게 친해져야 할지 방법에는 여전히 서툴다. 그런 점에서 좋은 친구의 기준에 관해 한 번쯤 각인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나쁜 친구 감별법도 알려주는 게 좋다. 좋은 친구를 사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학부모 모임을 잘 활용하면 방법이 보일 것이다

중학생 부모의 간섭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시기다. 그렇다고 손을 놓으면 안 된다.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아주 높은 때이기 때문이다. 사춘기로 접어들면 아이는 부모에게 속 시원하게 털어놓는 것을 꺼린다. 그래서 표시 나지 않게 애정을 보여줘야 한다. 특히 “아빠와 엄마는 너와 네 친구들에게 관심이 많다”는 것을 계속 상기시켜 줘야 한다.



Tasting4

주소 서울시 중로구 창덕궁길 29-44
영업시간 10:00~22:00(일요일 휴무)
문의 02-744-2944

새로운 데이트 장소를 찾는다면 이곳!



서울 계동 본사 인근은 관광객뿐 아니라 연인들에게도 인기 만점인 여행 코스다. 한국의 전통적인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데다 아기자기한 공방과 카페, 맛있는 음식점이 즐비해 있기 때문. 이곳에 북촌의 데이트 명소를 꿈꾸는 레스토랑 테이스팅포(Tasting4)가 지난해 11월 11일 문을 열었다.

데이트 핫 플레이스를 희망하는 레스토랑답게 인테리어가 돋보인다. 코발트블루 컬러의 강렬한 외관은 멀리에서도 시선을 사로잡는다. 내부는 북층 구조로 1층은 카페, 2층은 이탈리아

레스토랑으로 구성돼 있다. 카페는 화이트 식탁에 블루 패브릭으로 포인트를 줬으며, 레스토랑은 화이트 컬러를 베이스로 원목가구와 크고 작은 화초, 드라이플라워 등을 곳곳에 배치해 편안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주문하면 가장 먼저 사워크림 위에 그린·블랙 올리브와 훈제 굴, 드라이 토마토가 얹힌 식전요리가 나온다. 입맛이 돌아질 때쯤 메인 요리가 나오는데, 넉넉한 양과 감각적인 플레이팅이 인상적이었다.

1·3 편안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테이스팅포 내관 전경. 2 코발트블루 컬러의 강렬한 외관. 4 저온 조리한 그릴 채끝 등심 스테이크. 5 식전 요리. 6 제철 채소와 해산물이 가득한 그릴 샐러드.

테이스팅포에는 샐러드, 파스타, 리소토, 스테이크, 디저트 등 다양한 메뉴가 준비돼 있다.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제철 채소와 해산물이 가득한 '그릴 샐러드'와 저온 조리한 '그릴 채끝 등심 스테이크'. 테이스팅포는 특히 스테이크가 유명한데, 여섯 시간의 엄지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전날 예약하면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다.

파스타는 2만원 전후, 스테이크는 3만4000원 이상으로 그리 저렴한 가격대는 아니다. 그러나 좋은 재료로 정성스럽게 만들어 맛이 좋고, 분위기가 훌륭

하다는 점을 따져볼 때 그리 비싸기만 한 가격은 아닌 듯하다.

※현대건설사원증을 제시하면 결제 금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자.

현대건설 임직원들을 위한
special event
현대건설사원증 제시시
1인당 화이트와인 1잔 서비스
2017년 3월말까지

문화 책갈피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어른'의 사전적 풀이다. 누구에게나 처음이 있듯 '어른'이 되는 것에도 조금의 팁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준비했다. 성장하는 어른들을 위한 책 베스트.

성장하는 어른들을 위한 책



회사의 언어
저자 김남일 | 출판사 어크로스

"오랜하게 자신을 포장하지도, 화려한 스펙을 깔고 들어오지도 않는다. 조용하고 묵묵히 일하다 어느새 조직의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사람들. 그들은 '회사의 언어'를 구사할 줄 알았다." 업무 하나에도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그때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 이 책은 회사에서 에이스가 되는 노하우를 이야기한다.

말씀씨는 나를 남편으로 착각한다
저자 최정원 | 출판사 베르북스

13년 전 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떠나 보낸 뒤 70대 소녀 엄마와 40대 늙은 아이의 동거가 시작됐다. 받는 사랑에 익숙한 무뚝뚝한 아들이 혼자 가 된 어머니와 함께 살며 발견한 소소한 감동을 수십 가지의 짧은 글로 담아냈다. 티격태격하는 모자의 모습은 흡사 시트콤 같지만 읽다 보면 어느새 잊고 살았던 어머니의 의미와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

저도 중년은 처음입니다
저자 사카이준코 | 출판사 바다출판사

40대이기는 해도 아줌마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여성이라면 크게 공감할 만한 책. 결코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 없지만, 노년에 대한 각오를 다지기에 너무 이른 시기. 그 어중간한 자리에서 겪어야 하는 당혹과 비애의 측면을 솔직담백하고 재치 있게 풀어냈다. 책은 작가가 체험하고 공감한 에피소드와 문화사회학적 해석이 담겨져 있다.

bold 저널 bold journal
bold 저널 편집부 | 출판사 bold 피리어드

엄마를 위한 잡지는 있어도 아빠를 위한 잡지는 없었다. <bold 저널>은 국내 최초 아버지를 위한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을 목표로 한다. 주제는 매호 바뀐다. 1호는 '놀이' 2호는 '여행' 3호는 '사춘기'가 메인 테마였다. 잡지는 3·6·9·12월 4회 발행하며, 짙막한 기사들은 웹 사이트 (boldjournal.com)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다.

<SPA 시험> 이렇게 준비하자

Picture Description 유형

Please describe the picture below.

This is a picture taken in the meeting room. There are three people in this picture.



On the right side, one woman wearing a red dress is talking with a smile. She is holding a document in her hand. On the left side, one woman is listening to her and she is holding her hands together. Between them, one man is standing and holding a briefcase. He is wearing a formal suit. In front of them, a lot of documents and some stationary are stacked on the table. It looks very messy.

Opinion Question 유형

What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do you find between jogging and walking? Also, which one is more suitable for you to do?

There are a few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jogging and walking. First, both are aerobic exercises which are good for your heart and lungs. Second, for both, you only need a good pair of running shoes or sneakers. Third, you can do both exercises anywhere and anytime. More importantly, you can do both exercises alone or with your friends. However, there are also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If you don't like running, you can walk at your own pace. You may not be able to jog if you have bad knees or heart problems. You are also better off with hiking or walking if you are old and have never exercised before. In my case, I like to jog until I sweat a lot. If not, I have not exercised enough. But I do love to walk fast sometimes.

자료 제공 SLI 교육원(02-541-7219)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 수정구슬처럼 빛나는 반려동물의 눈동자, 지구 반대편의 경이로운 자연 경관... 우리 곁에 존재하지만 쉽사리 눈과 마음에 담을 수 없는 감동적인 장면을 오래도록 간직하는 방법은 바로 사진이다. 특히 예술과 역사, 과학, 여행 등 폭넓은 주제의 뛰어난 사진들을 통해 현대인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 온 <스미스소니언> 매거진의 포토 콘테스트를 통해 인정 받은 사진이라면 감동은 더욱 크게 다가올 것이다.

HYUNDAI E&C TODAY
http://news.hdec.kr
Vol. 329
2017/02/22/Wednesday



경이로운 혹은 흥미로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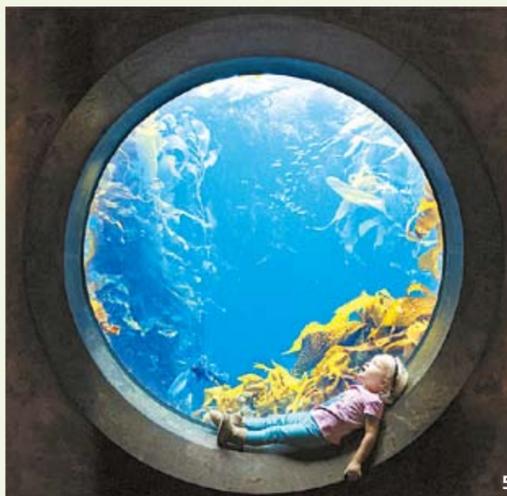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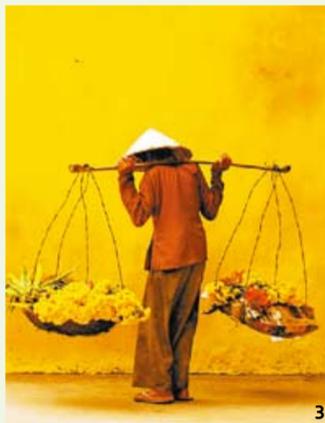
스미스소니언 사진展

동대문디지털플라자(DDP)
배움터 돌레길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81

2017.3.15 wed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진행 중인 <LOOK SMITHSONIAN: 스미스소니언 사진展>은 대한민국 최초로 진행되는 스미스소니언 기획전시로, <스미스소니언> 매거진이 매년 진행하는 '스미스소니언 매거진 포토 콘테스트'의 역대 수상작 약 140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스미스소니언협회가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진행하는 해외 최초의 사진전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형언할 수 없는' '익숙함을 벗어난' '햇살처럼 빛나는'의 세 테마 아래 소주제들로 묶인 에피소드 형식의 작품 구성은 관람객으로 하여금 사진에 담긴 감정과 기억에 공감하며 일상이 전하는 통찰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스미스소니언협회는 워싱턴 D.C에 박물관과 미술관, 동물원 등 약 20여 개 문화기관을 운영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문화시설이다. 스미스소니언협회의 산하기관인 <스미스소니언> 매거진은 온·오프라인 매거진 등으로 세계 독자들과 소통하는 동시에 2003년부터 포토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있다. 매년 100개국 이상, 수십만 명의 참가자를 배출함으로써 명실공히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라이프>, 세계보도 사진전과도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사진전으로 자리매김했다.



1 또 다른 시각, ©Kristina Buceatchi. All right reserved. 2 석유, ©Ray Collins. All right reserved. 3 베트남 호이안 거리에서 꽃을 팔고 있는 베트남 여인, ©Nara Rocha. All right reserved. 4 물 위를 걷다, ©Hayden Carlyon. All right reserved. 5 감탄, ©Royce Hutain. All right reserved. 6 엄마! 저 아래에 있어요! 배고파요!, ©Bjorn Olesen. All right reserved.

